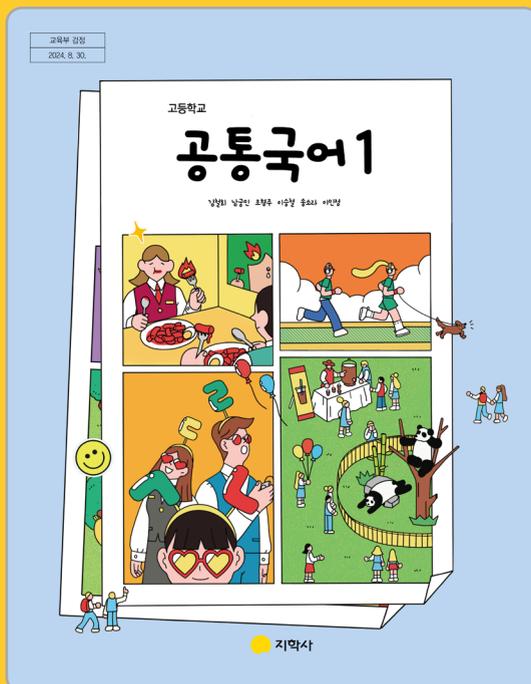


핵심 내용 완벽 분석,
학교 시험 실전 대비

평가문제집

고등학교 **공통국어 1**



김철회 교과서편

교과서의 핵심 내용 완벽 분석

—
주요 활동 정리와 응용 문제로
실력 강화

—
고난도, 서·논술형 문제까지
1등급 실력 완성

—
학교 시험 대비용 시험 족보와
실전 모의고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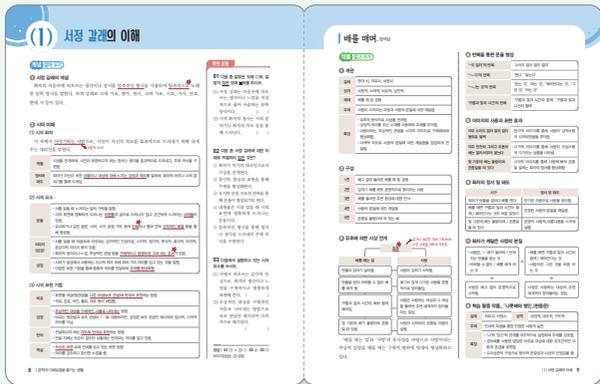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대단원 핵심 미리 보기로 학습 포인트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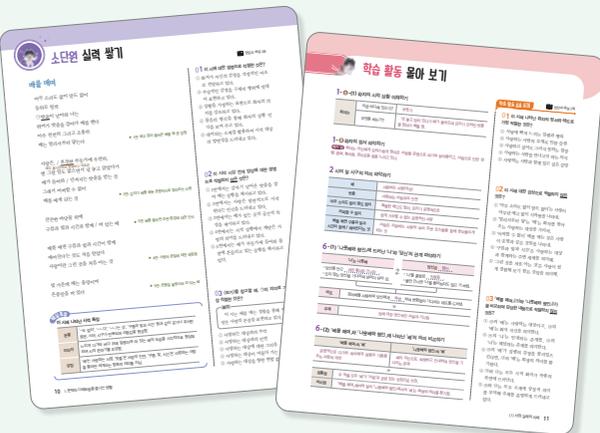
대단원 한눈에 보기 대단원에서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한눈에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소단원 본문과 학습 활동으로 교과서 완벽 분석하기



개념 알아 두기 소단원의 필수 학습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 문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재 알고 가기 소단원 제재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제재별 필수 학습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실력 쌓기 소단원의 본문 내용을 핵심 콕콕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몰아 보기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학습 활동을 모아서 제시하였습니다. 예시 답을 참고하여 주요 활동을 정리하고 응용 문제를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 서정 갈래의 이해	8
· 배를 매며 _장석남	
(2) 서사 갈래의 이해	14
· 봄·봄 _김유정	
(3) 극 갈래의 이해	32
· 기적 _손주연, 이정훈	
(II) 교술 갈래의 이해	46
· 풀 비린내에 대하여 _나희덕	
1등급 완성 문제	54

2

다변화 시대, '나'의 길 찾기

(1)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64
(2)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는 사회	72
· 언어의 높이뛰기 _신지영	
1등급 완성 문제	82

3

바르고 슬기로운 우리말 사용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88
(2) 대화의 원리	100
1등급 완성 문제	109

4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힘

(1) 세상을 보는 눈, 논리	116
· 초연결성은 지역성을 강화하는가 _ 김재영	
(2)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론	126
· 전염병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	
1등급 완성 문제	141

5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표현

(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148
(2) 매체를 활용한 세상 보기	162
1등급 완성 문제	173

🍀 학교 시험 직전 대비 문제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78
2 다변화 시대, '나'의 길 찾기	188
3 바르고 슬기로운 우리말 사용	194
4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힘	202
5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표현	210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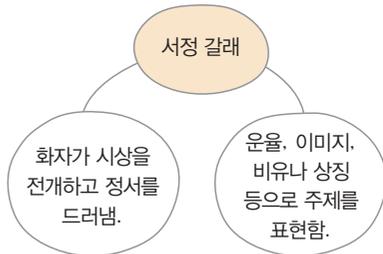
- (1) 서정 갈래의 이해
- (2) 서사 갈래의 이해
- (3) 극 갈래의 이해
- (4) 교술 갈래의 이해



-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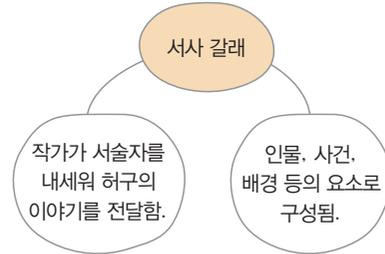
(1) 서정 갈래의 이해

- 「배를 매며」를 감상하며 서정 갈래의 특성 알아보기
-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며 시 감상하고 소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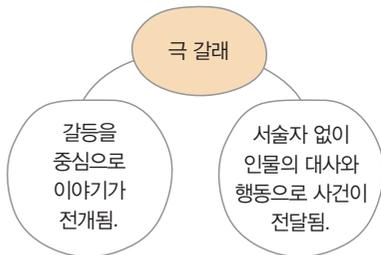
(2) 서사 갈래의 이해

- 「봄·봄」을 감상하며 서사 갈래의 특성 알아보기
-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며 소설 감상하고 소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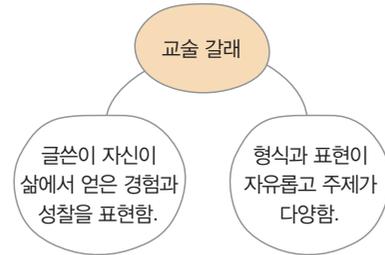
(3) 극 갈래의 이해

- 「기적」을 감상하며 극 갈래의 특성 알아보기
-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며 시나리오 감상하고 소통하기



(4) 교술 갈래의 이해

- 「풀 비린내에 대하여」를 감상하며 교술 갈래의 특성 알아보기
-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며 수필 감상하고 소통하기



(1)

서정 갈래의 이해

개념 알아두기

1 서정 갈래의 개념

화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정서를 압축적인 형식을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노래한 문학 양식을 말한다. 하위 갈래로 고대 가요, 향가, 한시, 고려 가요, 시조, 가사, 민요, 현대 시 등이 있다.

2 시의 이해

(1) 시의 화자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내세우는 대리인을 말한다. → 서정적 자아

역할	시상을 전개하며,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주제 의식을 구현함.
정서와 태도	화자가 자신이 처한 <u>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도</u> 를 말하며, 화자의 어조나 시의 분위기를 통해 드러남.

(2) 시의 요소

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말한다. 시의 표면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u>외형률</u>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u>내재율이</u> 있음. 유사하거나 같은 음운, 시어, 시구, 문장 구조 등의 <u>반복</u>이나 <u>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u> 등을 통해 형성됨.
이미지(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으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공감각적 이미지 등이 있음.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 추상적인 관념 등을 <u>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 내는 효과</u>가 있음.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시적 의미 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며 <u>주제를 형상화</u>함.

(3) 시의 표현 기법

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표현할 대상(원관념)을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u> 직유, 은유, 익인, 활유, 대유 등이 해당함.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u>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1:1로 대응하지만, 상징은 보조 관념만 제시되어 암시적, 다의적 의미를 지님.
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u> 진술 자체는 모순이 없지만 상황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음.
역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u> 의미를 강조하고 참신한 느낌을 줌.

확인 문제

01 다음 중 알맞은 것에 O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하시오.

- (1) 서정 갈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직설적으로 풀어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
- (2) 시적 화자의 정서는 시의 분위기나 화자의 어조 등을 통해 드러난다. ()

02 다음 중 서정 갈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② 참신한 발상과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기도 한다.
- ④ 내재율은 시를 읽을 때 시의 표면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운율이다.
- ⑤ 압축적인 형식을 통해 정서나 생각을 드러내며 주제 의식을 구현한다.

0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의 요소를 쓰시오.

- (1) 시에서 떠오르는 감각적 인상으로,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 준다. ()
- (2)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보조 관념만 제시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

정답 | 01 (1) X (2) O 02 ④ 03 (1) 이미지(심상) (2) 상징

배를 매며_장석남

작품 알고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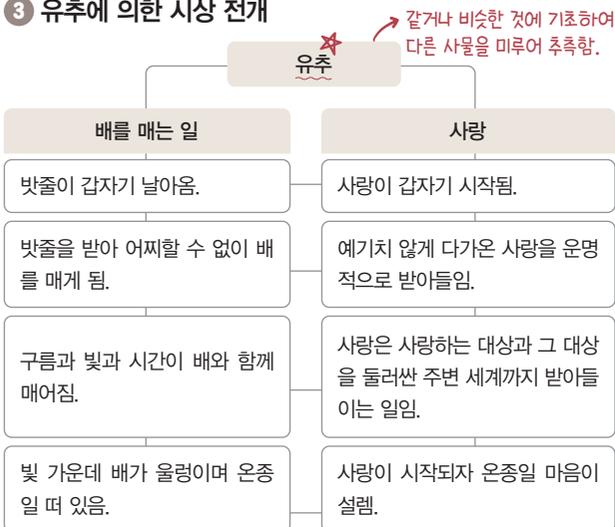
1 개관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낭만적
제재	배를 매 본 경험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형상화함. • 사색적 어조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전달함.

2 구성

1연	예고 없이 들어온 배를 매 본 경험
2연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3연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4연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5연	온종일 울렁이며 떠 있는 배

3 유추에 의한 시상 전개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4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도 없이’의 반복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다’의 반복	‘맨다’, ‘달는다’
‘-니/는 것’의 반복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의 반복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5 이미지의 사용과 표현 효과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탈씩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랑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음을 부각함.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달는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을 나타냄.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랑에 빠져 온종일 설레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6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시구	정서 및 태도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을 맞이함.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음.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 을 떠 있다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설렘.

7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은, ~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		↓
사랑은 예고 없이 운명적으로 시작됨.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 받아들이는 것임.

8 학습 활동 작품_「나룻배와 행인」(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대조적, 구도적
주제	인내와 희생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당신’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강조함. • 경어체를 사용한 담담한 어조로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함. • 수미상관의 구성으로 형식적 완결성과 시상의 안정감을 줌. 		



소단원 실력 쌓기

정답과 해설 2쪽

배를 매며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털썩

① **뱃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뱃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 1연: 예고 없이 들어온 배를 매 본 경험

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매우 흥분하여 쓸쓸하고 외로운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뱃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 2연: 갑자기 배를 매듯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

▶ 3연: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 4연: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5연: 온종일 울렁이며 떠 있는 배

핵심 꼭꼭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특징

운율	'-도 없이', '-니다', '-니/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 등과 같이 겹거나 유사한 음운, 시어, 시구가 반복되며 리듬감을 형성함.
이미지	느리게 다가와 바다 위에 일렁이며 떠 있는 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상징	'배'는 사랑하는 사람, '뱃줄'은 사랑의 인연, '구름, 빛,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님.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인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물음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대비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의 시상 전개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갑자기 날아온 뱃줄을 잡아 매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시작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배가 있는 곳의 공간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시적 상황에서 깨달은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배가 부둣가에 들어와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03 <보기>를 참고할 때, ①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시는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 ① 사랑하는 대상과의 추억
- ②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
- ③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 ④ 사랑하는 대상이 머물다 가는 계기
- 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변함 없는 마음



학습 활동 몰아 보기

1-①-(1) 화자의 시적 상황 이해하기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둣가
	무엇을 하는가?	넋 놓고 앉아 있다가 배가 들어오며 갑자기 던져진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맴.

1-②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예시 답 화자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을 운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인한 설렘, 환희, 놀라움, 경이로움 등을 느끼고 있다.

2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배	사랑하는 사람(대상)
밧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특별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운명적으로
어찌할 수 없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 주변 요소들을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6-(1) 「나룻배와 행인」에 드러난 '나'와 '당신'의 관계 파악하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u>행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신을 안고 <u>어떤 물이든 건너감</u>.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낚아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휴발로 <u>짓밟음</u>.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림.
어조	경어체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u>희생</u> 하며 변함없이 기다리는 태도를 드러냄.
주제	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

6-(2) 「배를 매며」와 「나룻배와 행인」에 나타난 '배'의 의미 비교하기

「배를 매며」의 '배'	「나룻배와 행인」의 '배'
운명적으로 다가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	화자 자신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
공통점	두 작품 모두 '배'가 '사랑'과 관련 있는 상징으로 쓰임.
차이점	「배를 매며」에서와 달리 「나룻배와 행인」에서의 '배'는 희생의 의미를 환기함.

학습 활동 응용 문제

정답과 해설 2쪽

01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에 빠져 느끼는 설렘과 행복
- ②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한 슬픔
- ③ 사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절망
- ④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
- 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

02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는 사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됨을 나타내.
- ② '멀리서부터 닿'는 '배'는 화자를 찾아오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켜.
- ③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이 운명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
- ④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주변 세계를 의미해.
- ⑤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은 사랑이 쉽게 경험해 보기 힘든 것임을 의미해.

03 「배를 매며」(㉠)와 「나룻배와 행인」(㉡)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배'는 사랑하는 대상이고, ㉡의 '배'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 ② ㉠의 '나'는 인내하는 존재를, ㉡의 '나'는 체념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③ ㉠의 '배'가 설렘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의 '배'는 희생의 의미를 환기한다.
- ④ ㉠과 ㉡는 모두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다.
- ⑤ ㉠과 ㉡는 모두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01~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 깊으나 얇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학습 활동 응용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학습 활동 응용

02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사랑을 이루기 위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으로 인해 설레는 감정 상태에 이르고 있다.
- ④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사랑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아쉬워하고 있다.
- ⑤ 자연에서 인간 세상과 대비되는 특성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학습 활동 응용

03 (가)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밧줄이 날아오는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배'를 중심 소재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부둣가에서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화자의 내면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에 빗댄으로써 상대에 대한 희생, 상대를 향한 무한한 인내와 믿음 등을 본질로 하는 사랑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밧줄을 잡'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 ② (가)에서 화자가 '어찌할 수 없이'라고 말한 것은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라고 인식했음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가)에서 화자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음을 보여 주는 거야.
- ④ (나)에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당신'의 모습은 사랑의 본질이 상대에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 ⑤ (나)에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잡니다'는 '당신'이 올 것을 믿으며 무한히 인내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서술형 (가)와 (나)에 사용된 '배'의 의미상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0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대응하는 '당신'의 태도를 함축한다.
- ② ㉠과 ㉣은 '나'와 '당신'이 함께 시련을 헤쳐 나가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③ ㉣은 ㉠으로 떨어진 '나'와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④ ㉣과 ㉣은 '당신'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부각한다.
- ⑤ ㉣은 ㉠의 부정적인 속성을 정화하기 위한 외적 환경을 의미한다.

서술형

06 ㉠에서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서술하시오.

07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배를 민다
 배를 밀어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① (가)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를, <보기>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을 통해 사랑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표현한다.
- ② (가)는 '배를 매'는 행위를, <보기>는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드러낸다.
- ③ (가)는 '천천히', '조용히'를, <보기>는 '아슬아슬히'를 통해 대상이 다가올 때 화자가 느낀 인상을 표현한다.
- ④ (가)는 '호젓한 부둣가'의 분위기를, <보기>는 '뵈지도 않는 길'의 분위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낸다.
- ⑤ (가)는 '울렁이며'를, <보기>는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서술형

08 (나)에서 1연과 5연을 반복함으로써 얻고 있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
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담담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③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수능형

02 (가)의 시상 전개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가 ‘털썩’과 연결되 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사랑은’이 ‘밧줄을 받는 것’, ‘배를 매게 되는 것’ 과 연결되어 사랑이 시작되는 모습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 해 표현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가 ‘배’와 연결되어 주 변 세계와 함께 존재하는 ‘배’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4연에서 ‘처음 알았다’가 ‘처음 아는 것’과 연결되어 사랑 을 처음 하면서 느끼는 벽찬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
- ⑤ 5연에서 ‘빛 가운데 배’가 ‘떠 있다’와 연결되어 ‘배’의 모습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03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이 자신이 있는 곳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 내고 있다.
- ②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믿음을 드러 내고 있다.
- ③ ‘당신’이 흠발로 자신을 짓밟는 것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당신’을 기다리는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체념 을 표출하고 있다.
- ⑤ ‘당신’을 맞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 각을 드러내고 있다.

★ 0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배’가 찾아오게 하는 배경이고, ㉡은 화자에게 ‘당신’이 정착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 ② ㉠은 화자가 ‘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배경이고, ㉡은 화자가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배경이다.
- ③ ㉠은 화자가 ‘배’와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배경이고, ㉡은 화자가 ‘당신’을 만나 함께할 수 있는 배경이다.
- ④ ㉠은 화자에게 ‘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배경이고, ㉡은 화자에게 ‘당신’의 고통을 전해 주는 배경이다.
- ⑤ ㉠은 화자가 ‘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배경이고, ㉡은 화자가 ‘당신’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배경이다.

수능형 < 학습 활동 응용 >

0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배’가 사랑과 관련 있는 상징으로 쓰인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 ‘배’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난다. (가)에서의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나)에서의 ‘배’는 화자 자신으로, 희생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리는 존재로 나타난다.

- ① (가)의 ‘뛰어가 밧줄을 잡’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것을 나타내겠군.
- ② (가)의 ‘어찌할 수 없이’는 운명을 거슬러서라도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지를 나타내겠군.
- ③ (나)의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를 나타내겠군.
- ④ (나)의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위해 인내하는 모습을 나타내겠군.
- ⑤ (가)의 ‘울렁이며’는 사랑으로 마음이 설레는 화자의 상태를, (나)의 ‘날마다 날마다 낚아잡니다’는 부재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겠군.

< 학습 활동 응용 >

06 (가)에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운율 형성 요소 네 가지를 찾아 쓰시오.

보기

이 시에서는 () 등과 같은 유사한 음운, 시어, 시구 등을 반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7~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밭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승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으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씨다듬으면서 그대루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켜든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드니

㉠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우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 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셈속이나? 이 대가릴 까놀 자식.”

나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옥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옥보다 읍의 배 참봉 떡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옥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길 길 호박개 갈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푹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줌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㉔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 잔다구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꽁, 꽁.’ 앓았드니 종당에는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

㉕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버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떠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 일 눈을 혼자 삶어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오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㉖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온!”

하고 남 낫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멧돌에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뺨까 하다가 꺾꺾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㉗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스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 내슈, 뭐.”

㉘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쩡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러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뺨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

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러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㉙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 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우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즉 모르지만 병)이 날라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0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이 처한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08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본래부터 장인에 대해 품고 있던 미움이 장인과 싸우는 원인이 되었군.
- ② ‘나’는 장인이 스스로없이 자신을 부러 먹는 위치에 있어서 장인을 두려워하는군.
- ③ ‘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장인이 난처해져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군.
- ④ ‘나’는 자신이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수확한 곡식을 점순이가 먹고 키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는군.
- ⑤ ‘나’는 장인에게 혼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 따지면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군.

09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서술자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장인에 대한 '나'의 심리를 고려할 때, '나'가 장인과 싸운 것이 장인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독자는 의심을 품을 수 있겠군.
- ② 장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나'가 배가 아프다며 일을 멈춘 것에 대해 독자는 서술자의 생각을 의심해 다른 이유를 파악하려고 작품 읽기에 더욱 집중하겠군.
- ③ '나'가 장인이 배 참봉 댁 마름으로 인심을 잃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나열한 것에서는 서술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군.
- ④ '나'가 장인이 자신에게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앓던 '나'가 일을 하면 장가들게 해 주겠다는 장인의 말에 귀가 번쩍 띄여 일을 한 것에서 독자는 합리성이 부족한 서술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10 (나)에서 드러나는 장인에 대한 '나'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 ②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욕을 한다.
- ③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쳐 필요 이상으로 궁색하게 생활한다.
- ④ 마름에 어울리는 외양을 지니고 있으며 전형적인 마름의 말과 행동을 보인다.
- ⑤ 이기적인 성향으로 자신의 이익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몰인정하게 대한다.

11 (마)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특성을 이성을 향한 인물의 내면 심리 상태와 연결 짓고 있다.
- ② 특정 공간에서 인물이 한 일들을 열거하며 인물의 행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의 성품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인물의 고뇌를 보여 주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가 보이는 태도에 대한 이유를 물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나'가 숨기고 있는 부정적 의도를 간파해 '나'의 속셈을 떠보고 있다.
- ③ ㉢: 농사가 잘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며 '나'를 설득하고 있다.
- ④ ㉣: 점순이의 키를 근거로 성례를 시켜 줄 수 없다며 '나'를 나무라고 있다.
- ⑤ ㉤: '나'의 지위를 확인해 주며 '나'를 회유하고 있다.

1등급 서·논술형

13 <보기>는 (다)에 쓰인 구절이다. 이 구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놈의 장인님

<조건>

성례 문제에 대한 장인의 태도와 그에 대한 '나'의 심리를 포함할 것.

단원별 시험 족보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학교 시험을 대비해요!



학교 시험 직전 대비 문제



학교 시험 직전 대비 시험 족보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 서정 갈래의 이해 (배를 매며)

✪ 서정 갈래의 특징

-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에서 생겨난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다.
-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노래하는 듯한 ❶□□이 느껴지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특징

운율	'-도 없이', '-나다', '-ㄴ/는 것', '구름과 빛과 시간' 등과 같이 같거나 유사한 시어와 시구가 반복되며 리듬감을 형성함.
이미지 (심상)	느리게 다가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모습을 ❷□□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상징	'배'는 사랑하는 사람, '❸□□'은 사랑의 인연, '구름, 빛,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라는 의미를 지님.

✪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유추)

'배를 매는 일'과 ❹□□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배를 매는 일		사랑	
1연	갑자기 날아온 밧줄을 잡아 배를 맬.	2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임.
3연	배가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음.	4연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 그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임.
5연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음.	5연	사랑으로 온종일 마음이 설렘.

✪ 이 시의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

- 사랑은 예고 없이 ❺□□□으로 시작된다.
-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 이 시와 「나룻배와 행인」(한용운)과의 비교

	「배를 매며」	「나룻배와 행인」
공통점	'배'가 사랑과 관련된 상징으로 쓰임.	
차이점	'배'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임.	'배'는 화자 자신으로, 당신을 기다리며 ❻□□하고 인내하는 존재임.

(2) 서사 갈래의 이해 (봄·봄)

✪ 서사 갈래의 특징

-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서술한다.
- 소설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이 작품의 중심 갈등

'나'	갈등의 근본 원인	장인
점순이와 빨리 성례를 치르고 싶어 함.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장인의 탐욕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계속 성례를 미룸.

✪ 인물의 성격

인물	성격
'나'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 장인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함.
장인	혼인을 미끼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활한 인물. 체면을 중시하고 욕심이 많음.
점순	아무지고 당돌하며 ❷□□□인 인물. '나'가 장인에게 성례를 요구하도록 부추기나, 정작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의 편을 드는 이중적 모습을 보임.

✪ 이 작품에 나타난 해학적 요소

인물과 시점	주인공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직한 인물인 데서 해학성이 드러남.
과장된 희극적 상황	장인과 사위의 정상적인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몸싸움 장면이 웃음을 유발함.
토속어, 비속어의 사용	생동감 있는 토속어와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웃음을 유발함.
익살스러운 표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익살스러운 표현이 해학성을 불러일으킴.

✪ 이 작품의 역순행적 구성

절정 ①	결말	절정 ②
'나'와 장인의 희극적 몸싸움	장인의 회유로 '나'와 장인의 일시적 화해	'나'와 장인의 희극적 몸싸움 최고조



- '나'와 장인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❸□□될 것임을 암시함.
- '나'와 장인의 어정쩡한 화해로 뒷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함.
-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와 '나'의 얼빠진 모습으로 작품을 마무리해 해학성을 부각함.

(3) 극 갈래의 이해 (기적)

* 극 갈래(시나리오)의 특징

-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⑨ □□을 통해 전달된다.
- 신(Scene)과 시퀀스로 구성되며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

* 등장인물의 성격

인물	성격
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죽은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 •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누나를 챙기는 등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
태운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사. ⑩ □□□□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인물 • 준경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준경과 갈등하며, 자기 때문에 아내와 보경이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옴.
보경 (누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준경을 정성껏 보살피는 인물로, 열차 사고로 죽은 이후 ⑪ □□의 눈에만 보이는 인물로 등장함. • 준경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아버지와 준경이 화해하기를 바람.

* 작품의 중심 갈등과 주제

갈등 양상	주제
마을에 기차역이 없는 사회 현실과 양원역을 건설하려는 준경 사이의 갈등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꿈의 실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준경과 태운 사이의 갈등	오해에서 비롯된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 공간적 배경과 사건의 연관성

배경	사건
⑫ □□□□이 없는 산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가 서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위험한 기차길로 걸어 다니다 사고를 당함. • 보경이 준경의 트로피를 지키려다 철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고, 준경이 죄책감을 가지게 됨.

↓

준경이 기차역 건설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갖게 됨.

* ⑬ □□ 장면의 서사적 기능

S# 117~S#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경이 4학년 때 시상식 날, 보경이 태운이 운행한 열차를 피하다 사고가 났음을 알려 줌. • 보경이 죽던 날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태운이 준경에게 보인 태도가 과거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줌. • 태운이 준경의 시상식에 가지 못한 일을 평생의 한으로 지니게 된 이유가 밝혀짐.
---------------	---

(4) 교술 갈래의 이해 (풀 비린내에 대하여)

* 교술 갈래의 특징

- 글쓴이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한다.
-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주제가 다양하다.
-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관, 개성 등이 잘 드러난다.

*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태도 변화

사건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안락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 •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
풀 비린내 사건 (성찰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며 충격을 받고 죄의식을 느낌. •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사건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함. •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다짐함. • 자동차가 다른 생명뿐 아니라 인류에게도 해(피비린내)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 함.

* '풀 비린내'의 의미와 글쓴이의 깨달음

'풀 비린내'의 의미	글쓴이의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에서 나는 냄새 •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와 자연의 처참한 모습 •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글쓴이의 ⑭ □□□□에 대한 비유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인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을 함. •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풀 비린내뿐 아니라 ⑮ □□□□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함.

* 이 글과 「슬견설」(이규보)의 관점 비교

「풀 비린내에 대하여」	「슬견설」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도 소중한 생명임.	큰 동물인 '개'나 하찮은 생물인 '이'나 모두 소중한 생명임.
인간이 아닌 생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한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이 드러남.	

정답 | ① 운율 ② 시각 ③ 밧줄 ④ 사랑 ⑤ 운명적 ⑥ 희생 ⑦ 적극적 ⑧ 반복 ⑨ 행동 ⑩ 고지식 ⑪ 준경 ⑫ 기차역 ⑬ 회상 ⑭ 죄책감 ⑮ 피비린내

학교 시험 직전 대비
실전 모의고사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1단원

정답과 해설 44쪽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녀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 온종일을 떠 있다

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찢고 눈비를 맞
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늙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되는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02 (가)의 시상 전개상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잡아다'에 담긴 화자의 부끄러운 마음을 부각한다.
- ② ㉡은 '조용히'가 드러내는 적막한 분위기와 대비된다.
- ③ ㉢은 '녀 놓고'와 조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방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은 '떠 있는 배'와 연결되어 대상 간에 조성된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⑤ ㉤은 '울렁이며'로 표현된 화자의 정서가 지속되고 있음을 부각한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연에서 배를 매는 행위와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행위와 상황을 2연에서 사랑과 연결하고 있다. 또한 3연에서 배의 모습을 제시하고, 4연에서 3연의 시상과 연결하여 사랑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는 배의 모습에 빗대어 사랑에 빠져 있는 화자의 내면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는 배를 매는 행위 이전의 상황으로, 배를 매는 행위가 예고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배를 매게 되는 것’은 1연의 배를 매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으로, ‘사랑은’과 호응되어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는 1, 2연의 배를 매는 행위에 의해 바닷물에 떠 있는 배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은 3연에서 전개된 시상과 관련하여 화자가 사랑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는 잔잔한 바닷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배의 모습으로, 벽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에 당황해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04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나룻배’와 ‘당신은 행인’은 ‘나’가 ‘당신’이 물을 건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흙밭로 나를 짓밟’는 ‘당신’과 ‘당신을 안’는 ‘나’의 행동이 대조되어 ‘나’의 희생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은 ‘나’와 ‘당신’의 관계를 단절하는 장애물을 의미하고 있다.
- ④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는 상황은 ‘당신’을 기다리는 ‘나’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05 (가)와 (나)에서 ‘배’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06~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엇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쫓알거린다. 탄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하니까,

ⓐ “침을 잡아채지 그냥 뒤,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섰죽하니 뒤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에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웁다 했을 것이다.

나 사실, 이때만치 슬펐든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두 괜찮지만 내 안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갈라 하다 도루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들어누어서, ㉠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 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집으로 트림을 꿀꺽 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관객이 났어유, 아이구 배야!”

ⓑ “기껏 밥 처먹구 나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 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가두 좋아유, 아이구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후 아들을 낳어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 쪽에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횡하게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 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적마다 통거지면서 뺨살이 푹푹한 것이** 여간 켤기지 않았다. ㉡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정이 꺾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었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불기짜를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곁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하는, ㉢ 내 곱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율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툭툭히 못 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딱 기뻐했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 “이걸 까셀라 부다!”

하고 소리를 쳤다.

㉤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어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 “을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서를 하며 불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 “아! 아! 이놈아! 놈아, 놈,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채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덩겼다는, ㉨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아, 놈, 놈, 놈아.”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혈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A]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 나는 구태여 피할라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떨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0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어체를 사용하여 독자가 서술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여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사회적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나열해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7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해학은 웃음을 유발하되 대상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익살이 담겨 있다. 김유정의 「봄·봄」에는 해학적인 요소가 짙게 반영되어 있는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행동과 익살스러운 표현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나’의 우스꽝스럽고 무지한 면모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연민과 동정,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관객이 났’다고 피병을 부리는 ‘나’의 행동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해 해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나’가 자신의 배에 대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통겨지면서 뺨창이 꽃꽃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장인이 ‘볼기짜를 후려갈’기자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는 행동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저항으로 ‘나’가 연민과 동정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나’가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펍 기뻐했지.’라며 점순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나’의 어수룩한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나’와 장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해학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08 <보기>를 참고할 때, 사건 구성상 (마)를 (라) 뒤에 배치하여 얻고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일 경우〉



- ① 작품의 해학성을 극대화한다.
- ②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한다.
- ③ 뒷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 ④ 점순이의 태도에 얼이 빠진 ‘나’의 모습을 부각한다.
- ⑤ 장인과 ‘나’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09 이 글에서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인의 포악하고 거친 성격
- ② 장인을 짜증나게 하는 ‘나’의 피병
- ③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의 교활함
- ④ 겉으로만 장인을 미워하는 점순이의 이중성
- ⑤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나’의 단호한 태도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점순이가 자신을 바보로 여길까 봐 염려하는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장인에게 반격한 행동이 점순이를 의식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 거짓말로 ‘나’를 회유하려는 장인의 교활한 면모가 담겨 있다.
- ④ ㉣: 장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순진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⑤ ㉤: 고통스러워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며 ‘나’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11 이 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점순이가 성례 문제에 소극적인 ‘나’를 답답해하는 태도가 부각되도록 해야겠어.
- ② ㉡: 장인이 일을 부러 먹기 위해 ‘나’를 위협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해야겠어.
- ③ ㉢: ‘나’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서 장인과 갈등하는 상황이 성가신 ‘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겠어.
- ④ ㉣: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챌 때는 호기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겠어.
- ⑤ ㉤: ‘나’가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망연자실하고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12 [A]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순이의 태도를 제시하고, 그 태도가 사건 전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1) 서정 갈래의 이해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0쪽

01 ② 02 ② 03 ②

- 01** 이 시에서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가령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을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와 같은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
- 02** 필연적이라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연에서는 '우연히'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배를 매게 되는 것처럼, 우연히 찾아온 사랑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랑이 필연적으로 시작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03** <보기>를 통해 '배를 매는 일'이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밧줄'은 사랑하는 대상과 '나'의 인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1쪽

01 ① 02 ⑤ 03 ②

- 01** 이 시의 화자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을 운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인한 설렘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 02**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에서 '그런 것'은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는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임을 의미하지, 사랑이 쉽게 경험해 보기 힘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 03** ②의 '나'는 운명적으로 찾아온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감정으로 설레는 존재이다. 이에 비해 ④의 '나'는 '당신'을 태우고 물을 건너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희생하고 인내하는 존재이다.
- |오답 풀이|** ① ②의 '배'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고, ④의 '배'는 사랑하는 대상이 물을 건너게 해 주는 화자 자신('나')을 의미한다.
- ③ ②에서는 '배'가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화자는 배를 통해서 설렘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에 비해 ④에서는 '나룻배'가 화자 자신이므로, 사랑하는 이를 태우고 물을 건너고 온

갖 역경을 묵묵히 견디며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희생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②와 ④ 모두 '나'라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 ⑤ ②에서 '배'는 '사랑하는 사람', '밧줄'은 '사랑의 인연', '구름, 빛,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라는 상징적 의미로 쓰이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역시 '나룻배'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존재를, '여울', '바람', '눈비' 등의 시어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 주고 있다. 따라서 ②와 ④ 모두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적용 문제

본문 12~13쪽

01 ② 02 ③ 03 탈색 04 ④ 05 ④ 06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07 ② 08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며, '나'와 당신의 관계를 부각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01** (가)와 (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탈색'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밧줄이 갑자기 날아온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희생하며 변함없이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나룻배'인 화자 자신과 '나룻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당신'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ㄴ/는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ㅂ니다'와 '-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2** (가)의 1연에서는 '나'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날아온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는 행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의 상태를 5연에서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라고 표현하고 있다.
- 03** 이 시의 1연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는 음성 상징어인 '탈색'을 사용하여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밧줄이 날아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04** (나)에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당신'의 모습은 '나'가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렸음에도 '나'를 무정하게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보여 준다. 사

량의 본질이 상대에게 얽매이지 않는 태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날아온 '뱃줄을 잡'는 행위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어찌할 수 없이'는 사랑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저항할 수 없이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에서 '그런 것'은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세계까지도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는 당신을 위해 급한 여울을 건너고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이고 낮이고 당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배가 낡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면서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서술형 GO | 예시 답 | (가)에서의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와 화자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나)의 '배'는 당신을 기다리며 희생하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05 ㉠, ㉡은 모두 당신을 위해 '나'가 견디는 고난, 역경, 장애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난, 역경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희생적 태도를 부각한다.

06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에는 화자가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를 보면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가)의 '배를 매'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을, <보기>의 '배를 미'는 행위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 다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는 사랑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을 나타내며, <보기>의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은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낸 후에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그리움을 나타낸다.

③ (가)의 '천천히', '조용히'는 사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아슬아슬히'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낼 때의 아픈 마음을 환기한다.

④ (가)의 '호젓한 부둣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을, <보기>의 '뾰지도 않는 길'은 이별 후의 길을 의미한다. (가)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의 미래에 대한 막막한 심정이 드러나 있

지 않다.

⑤ (가)의 '울렁이며'는 사랑에 빠진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한편 <보기>의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을 배를 밀듯이 떠나보내려는 것을 나타낸다.

※ <보기> 작품 개관_ 배를 밀며(장석남)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화자	이별을 겪은 '나'
시적 상황	배를 미는 행위에서 이별의 과정을 연상하며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함.
화자의 정서와 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릴 수 없음.
주제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의 전환이 나타남.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드러냄. 배를 미는 행위에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을 비유함.

08 (나)의 시는 1연과 5연에서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나'와 당신의 관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서사 갈래의 이해

소단원 실력 쌓기

본문 16~2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⑤	16 ④
17 ④	18 ②	19 ④	20 ①	21 ⑤	22 ③	23 ③	24 ③
25 ②	26 ⑤	27 ②	28 ①	29 ④	30 ③	31 ③	32 이
녀석의 장인님		33 ①	34 ④	35 ⑤	36 ①		

01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며 그에 대한 생각과 심리 등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02 '나'가 장인이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야 성례를 한다는 말에 한 것에 대해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고 한 것에서, '나'가 장인의 말을 반박할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장인이 내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따라 점순이와 마주 서 이야기도 한 마디 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② '나'는 장인이 때가 되면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으며,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로 보아 '나'가 점순이와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일곱 달 동안을 했다.

④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뿐더러 이 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 장인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나'는 눈어림으로 점순이의 키를 재 보고는 했는데, ㉠은 이렇게 키를 재 보고 내뱉는 말이다. 즉 ㉠의 비속어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

04 '나'가 일을 하기 싫어 배가 아프다고 하자 장인은 '나'의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행동에 대응하는 주변 인물인 장인의 행동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장인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05 '나'는 점순이의 키가 크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 물을 대신 길어다 주기도 하고 '소낭당'에 치성을 여러 번 드렸다. 그럼에도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자 ㉡와 같이 생각하는데, 이는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자신의 처지에 체념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06 '나'는 어저께 장인과 싸운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장인과 싸운 것이 결코 장인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장인에게 뺨을 맞은 후 본래부터 지닌 미움이 더 강해졌다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마)에서 장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름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뇌물을 착취한다. 이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지위에 맞는 명분을 중시하는 모습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약이 오르면 손버릇이 아주 못됐으며 욕을 잘하는 것을 통해 다혈질이며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④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며, 동리 사람들에게도 욕을 하는 것에서, 타인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⑤ 작인이 닭 마리나 줌 보내지 않거나 애벌논 때 품을 줌 안 주든가 하면 소작권을 박탈하는 것에서,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에게 인색하게 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08 작년 이맘때 늦잠을 자던 '나'는 장인이 돌맹이를 던져서 발

목을 빼었다(㉢). 그때 그 일로 여러 날을 앓으며 일을 못 했는데, 장인이 장가들게 해 준다는 말로 '나'를 꼬셔서 '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장인이 혼례를 미루므로 '나'는 화를 내고 집으로 가려 하다가 참는다(㉣). 그리고 어제 '나'는 장인에게 뺨을 맞고 장인이 무색해서 겸연쩍어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 일을 떠올린 것이다.

09 장인은 ㉠에서 '나'가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혼례를 시켜 준다면 '나'를 회유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에서는 점순이가 커야 한다며 혼례를 못 시켜 준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장인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0 ㉢는 자신의 소매를 잡고 구장한테 가려고 하는 '나'의 태도에 장인이 당혹스러워서 한 말이다. 장인은 ㉢와 같은 말을 하며 안 간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장인은 '나'가 사위이지 머슴이 아니기 때문에 사경을 줄 수 없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 ㉡에서 장인은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안 시켜 주는 것이 점순이의 키 때문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④ ㉡에서 평상시에는 소를 부릴 때 어깨가 으쓱으쓱하며 흥겨웠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 전날'은 계속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는 평상시의 모습과 대비되는 '그 전날'의 심리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나'는 소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11 [A]에서는 봄의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면서 '나'가 춘정을 느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봄이라는 계절이 이성애에 대한 애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봄의 계절의 특성이 '나'가 점순이와 성례를 올리고 싶은 심리와 연결되어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12 화전발을 갈고 있을 때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난(㉣) '나'는 장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며 피병을 부리다가 장인과 대립한다. 그리고 혼례에 대한 답판을 지으려고 ㉤에서 장인을 끌고서 구장한테 가자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의 '울화'는 ㉤에서 '나'가 장인을 데리고 구장님한테 답판을 지으러 가는 이유가 된다.

13 이 글에서는 점순이의 외양을 제시하며 점순이에 대해 '나'가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참외 중에서 '젤 맛 좋고 예쁜 감참외' 같다는 말은 '나'가 점순이에게 호감과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점순이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감참외'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양 묘사를 통해 점순이의 부정적인 성격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순이를 좋아